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中 증시 랠리..떠오르는 2015년 폭락의 기억
 - ◇ (초점)-한은 초지일관에 롱포지션 정리 시동..외인 동향 주시
 - ◇ (시장진단)-거리두기 3 단계 가면 원화 약세 가팔라지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약화를 이유로 사임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이세이 카토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2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84.3	0.2%	-2.4%	-3.5%	유로	1,1903	0.9%	6.2%	-2.3%
100엔 대비	1,120.3	0.5%	-5.2%	-4.4%	엔	105.34	0.4%	3.1%	0.9%
유로 대비	1,405.1	0.0%	-7.9%	-1.3%	위안	6.8946	0.3%	1.0%	-1.3%
위안 대비	171.93	0.2%	-3.6%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653.87	2.6%	0.4%	22.3%
코스피	2,353.80	2.1%	7.1%	7.7%	나스닥	11,695.63	3.4%	30.3%	35.2%
코스닥	841.30	5.7%	25.6%	-0.9%	S&P500	3,508.01	3.3%	8.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78.73	2.8%	4.7%	15.8%
국고채 3Y	0.893%	3.9bp	-46.7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75%	4.9bp	-30.5bp	-40.4bp	미국채 2Y	0.133%	-1.5bp	-142.8bp	-93.7bp
국고채 10Y	1.486%	7.6bp	-19.7bp	-26.5bp	미국채 10Y	0.724%	8.8bp	-118.6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2.97	1.5%	-29.6%	34.5%	한국 5Y	21.5bp	0.2bp	0.4bp	-17.0bp
금(현물)	1,964.49	1.3%	29.5%	18.3%	일본 5Y	16.1bp	0.0bp	-1.6bp	-4.0bp
TR상품지수	2,433.87	2.0%	-2.1%	4.8%	중국 5Y	34.0bp	-3.3bp	3.3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월 31일(월)>

-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08:00)
- 기재부, 부총리·2차관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경제 분야) 출석(10:00)
- KDI 북한경제리뷰(8월호)(12:00)
- 금감원,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12:00)
- 한은, 코로나 19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충격 측정 및 평가(BOK 이슈노트)(12:00)
- 한은, 2분기중 주요 기관 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9월 1일(화)>

- 한은, 2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09:00)
- 기재부, 2021년 예산안(10:00)
- 금감원,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12:00)
- 국회, 정기국회 개회 및 기재위 전체회의

<2일(수)>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한은, 2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3일(목)>

- 한은, 8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 통계청,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4일(금)>

- 한은, 7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0:00, 1차관 정례브리핑 11:45), 부총리 피치 연례협의(14: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월 31일(월)>

- 일본, 7월 산업생산 잠정치·소매판매(08:50)
- 중국, 8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10:00)
-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23:30)
- 영국 휴장

<9월 1일(화)>

- 일본, 7월 실업률(08:30)
- 일본, 8월 외환보유고(08:50)
- 일본, 2분기 기업설비투자(08:50)
- 일본, 8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09:30)
-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10:45)
- 호주, 호주중앙은행(RBA) 정책 회의(13:30)
- 유로존, 8월 마켓 제조업 PMI(17:00)
- 유로존, 8월 CPI(18:00)
- 유로존, 7월 실업률(18:00)
- 미국, 8월 마켓 제조업 PMI(22:45)
- 미국, 7월 건설지출(23:00)
- 미국, 8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23:00)

<2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8월 ADP 전국고용동향(21:15)
- 미국, 8월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22:45)
- 미국, 7월 내구재주문 수정치·공장주문(23:00)

<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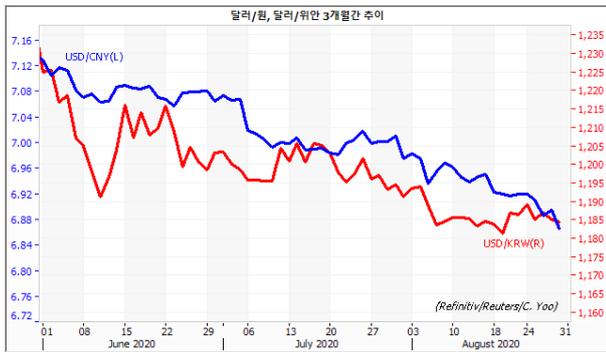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03:00)
-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10:45)
- 유로존, 8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17:00)
- 유로존, 7월 소매판매(18:00)
- 미국, 8월 찰리저해고건수(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2분기 노동비용 수정치(21:30)
- 미국, 8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22:45)
- 미국, 8월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 PMI 최종(23:00)

<4일(금)>

- 미국,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실업률(21: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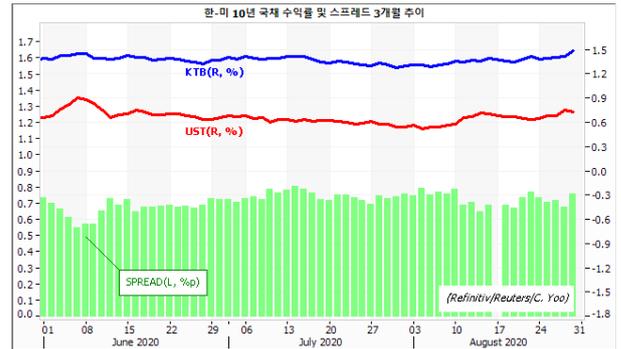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와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을 주시하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195 원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달러가 약세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
-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약달러에 적극 편승하는 원화 강세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 국내 은행 딜링룸도 강화된 교차 근무로 인해 더욱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환시 분위기는 한층 경직될 수도 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과 중국 8월 제조업 PMI에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한국의 8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의 8월 제조업 PMI가 나올 예정이다.
- 다음 달 2일에는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가, 4일에는 미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주중에는 여러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재차 확인된 데 따른 위험자산과 달러의 추가적인 반응이 관건인 가운데 원화가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 주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코로나 19 추가 확산 여부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 등에 따라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지난주 국내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계절적으로 채권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하지만' 스탠스까지 확인되다 보니 롱포지션이 기떨 곳을 잃었다.
-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평균물가목표제를 발표하며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후 국내 국채선물시장에선 외국인의 손절 성 매도까지 나왔다. 한국은행이 부랴부랴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장 큰 고비는 이번 주다.
- 정부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적용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골자인 이 정책은 사실상의 3단계 시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현재의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말 그대로 무수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재확산세가 이번 주에 잡히지 않을 경우 2차 재원지원금 지급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 재난지원금이 작게는 5,6조원, 많게는 10조원 가까이 된다 치고 앞으로 10월, 11월 정도가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다.
- 정부 역시 시장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을 텐데 답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4차 추경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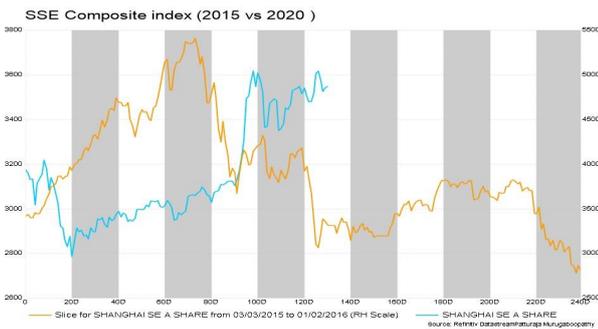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그래프/분석)-中 증시 랠리..떠오르는 2015년 폭락의 기억

(로이터) - 중국 주식시장이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은 지난 2015년 증시 붕괴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번 랠리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경제의 탄력성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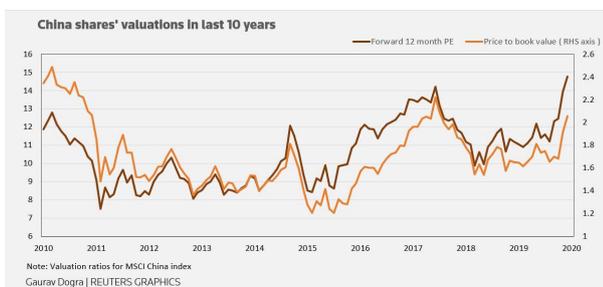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으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상하이 지수는 지난 5개월간 약 23% 상승해, 나스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로 밸류에이션은 2015년 고점에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시장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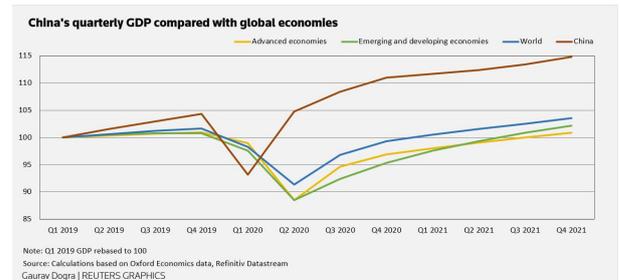
상하이 지수의 추가 수익 비율은 지난 5개월간 33% 상승해 2015년 상반기의 50% 상승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12개월 선행 추가 수익 비율은 지난 주 말 12.2였다. 2015년의 고점은 19.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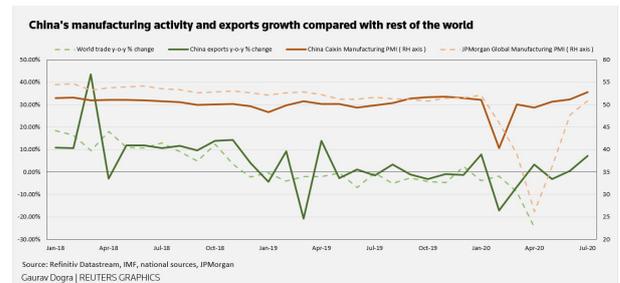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MSCI 중국지수는 추가순자산비율이 2.06으로 2015년 고점 1.81을 넘어섰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증시가 이번에는 경제의 비교적 빠른 회복과 본토 기업들의 더 나은 순익 전망으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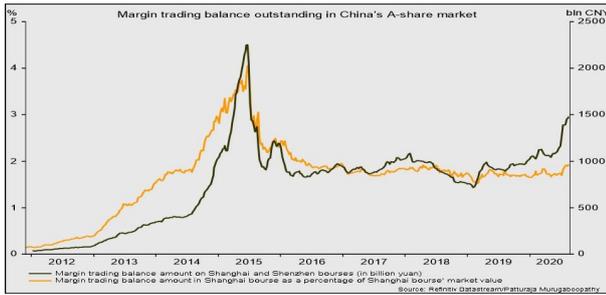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레피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올해 순익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 순익이 평균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베어링스의 윌리엄 푹 홍콩 및 중국 증시 헤드는 "현재 다른 점은 최근 순익이 IT와 디지털, 통신 및 헬스케어 등 특정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었고 모든 주요 부문의 활동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라면서 "마진 파이낸싱 밸런스과 계좌 개설이 더 적은 것은 2015년 중반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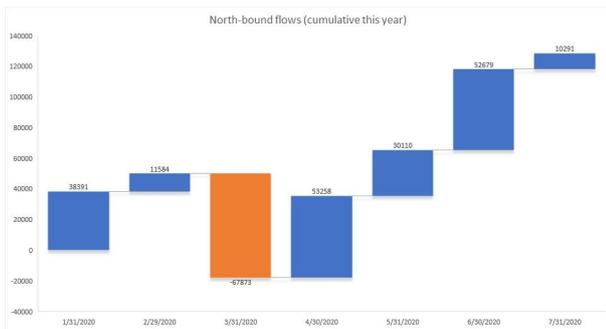
증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마진 파이낸싱은 지난 주 말 1조 4800억 위안으로 늘었는데, 2015년의 고점 2조 6000억 위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홍콩과 본토 간의 주식 교차거래 제도를 통해 A 증시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분기 중국 주식을 1360 억위안어치 순매수해, 1분기의 178 억위안 순매도와 대조를 이뤘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베일러드의 에릭 리브 CIO는 "중국의 코로나 19 이후 경기 부양책은 전통적으로 중국 증시와 밸류에이션에 도움이 되어온 인프라에 집중돼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이는 2015년과 같은 상황에 대한 보호막이 된다"고 말했다.

(초점)-한은 초지일관에 롱포지션 정리 시동..외인 동향 따라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채권가격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19 재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도 통화당국이 기존의 관망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

인되자 최근 가뜰이나 설 곳을 잃어가던 롱 포지션이 구석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오후 2시 52분 현재 3년 국채 선물 9월물은 전날보다 7 톱 하락한 112.06, 10년 선물은 33 톱 내린 133.30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한때 3년 선물이 112.22, 10년 선물이 134.05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진 셈이다.

초반 강세는 한은의 경제 전망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이 -0.2%였던 것을 감안할 때 여건이 그만큼 악화됐다고 본 것이다. 한은의 경제 전망 대폭 하향 조정을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로 본 곳들이 롱 포지션을 늘리면서 초반 강세장이 펼쳐졌다.

하지만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발표와 함께 강세폭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언제든 국채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불안하지 않다"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이후 약세폭은 더 확대됐다.

이날 롤러코스터 가격 변동의 배경과 관련해 시장 일부에서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대내외 금리 상승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점에 한은이라는 기델 곳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매도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A 증권사 채권 딜러는 "한은은 기존 스탠스와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이 혼자서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하다"며 "조운제 위원이 도비시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소수의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국고채 직매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곳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은 듯하다"며 "코로나 19 때문에 여차하면 추경을 더할 상황이고 글로벌 커브도 베어 스탱되고 있는 상황에 유일한 기델 곳이었던 한은마저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포지션 정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의 초점은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다. 이날 오전에 10년 선물을 2500 계약까지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 2200 계약 이상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다. 외국인의 3년, 10년 국채 선물 누적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한 상황에서 자칫 이들의 대규모 손절 매물이 나오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9월 국채 선물 만기까지 가격관리를 하고 싶을 텐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며 움직이고 있다"며 "국내 기관들이 밀어버리면 외국인들이 더 팔면서 가격 변동폭을 키우고 있어 솔직히 겁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 증권사 채권 딜러는 "지금은 롱 포지셔너가 기뻐데가 없다"며 "한은을 마지막 보루로 봤던 것 같은데 오늘 금통위로 그 기대감도 깨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롱 포지션 정리가 이어질 듯하다"며 "글로벌 금리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외국인도 여기서 털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D 외은 지정 이자율 딜러는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셀오프가 날 것"이라며 "만약 해외 금리마저 오르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하면 금리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진단)-거리두기 3단계 가면 원화 약세 가팔라지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외환시장 내 긴장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0 명대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3 단계 격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 속에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감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현재 달러/원 움직임은 차분하다.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 명대로 높아졌지만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국제 금융시장 내 증시 강세와

약 달러 모멘텀이 굳건히 유지되면서 겉으로는 국내 코로나 19 재료가 상당부분 희석되는 모양새다.

또한 정부가 거리 두기 3 단계 격상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점도 시장의 긴장감을 다소 완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 모든 가능성 열어둬 vs 민생경제 타격 불가피

국내 방역 당국은 최근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급증 상황을 두고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며 이미 지난주부터 거리 두기 3 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 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거리 두기 3 단계 격상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 차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 단계로까지 격상될 경우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에 대해 봉쇄 방식으로 대응한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반추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봉쇄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였다고 분석한 일부 외신기사가 있었고, 미국 의학협회저널은 K-방역과 같은 접촉자 추적 방식이 제대로 시행되면 코로나 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수학적 모델로 입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 단계 거리 두기는 거의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현 단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화도 아직은 선뜻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 3 단계 격상되면 원화 약세 가속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리 두기 3 단계 격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질문에 "3 단계 격상 시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시장 참가자들 역시 3 단계 격상 여부를 주목 하면서 이후 여파를 저울질 중이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만약 3 단계로 격상한다면 시장 충격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선방한 한국 방역에 대한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외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같은 리스크에 대해 시장이 너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아닌가 한다"면서 환율의 급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코로나 19 재확산을 경험했고, 또한 지난 3 월과 달리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우호적인 점을 감안할 때 원화의 반응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3 단계 격상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응에 그칠 것"이라면서 "글로벌 달러 흐름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글로벌 리스크는 우호적일 것 같고 이에 달러/원 환율은 살짝 아래 쪽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은 원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당국의 대응 변수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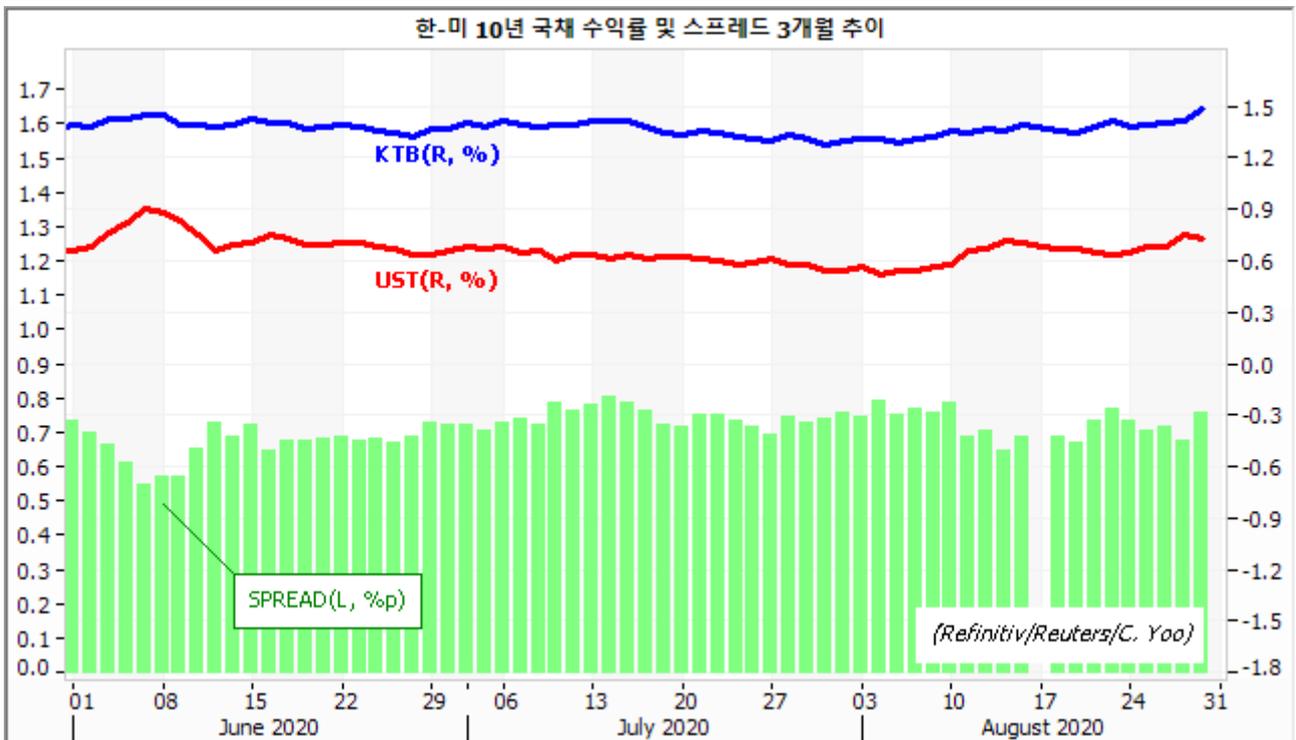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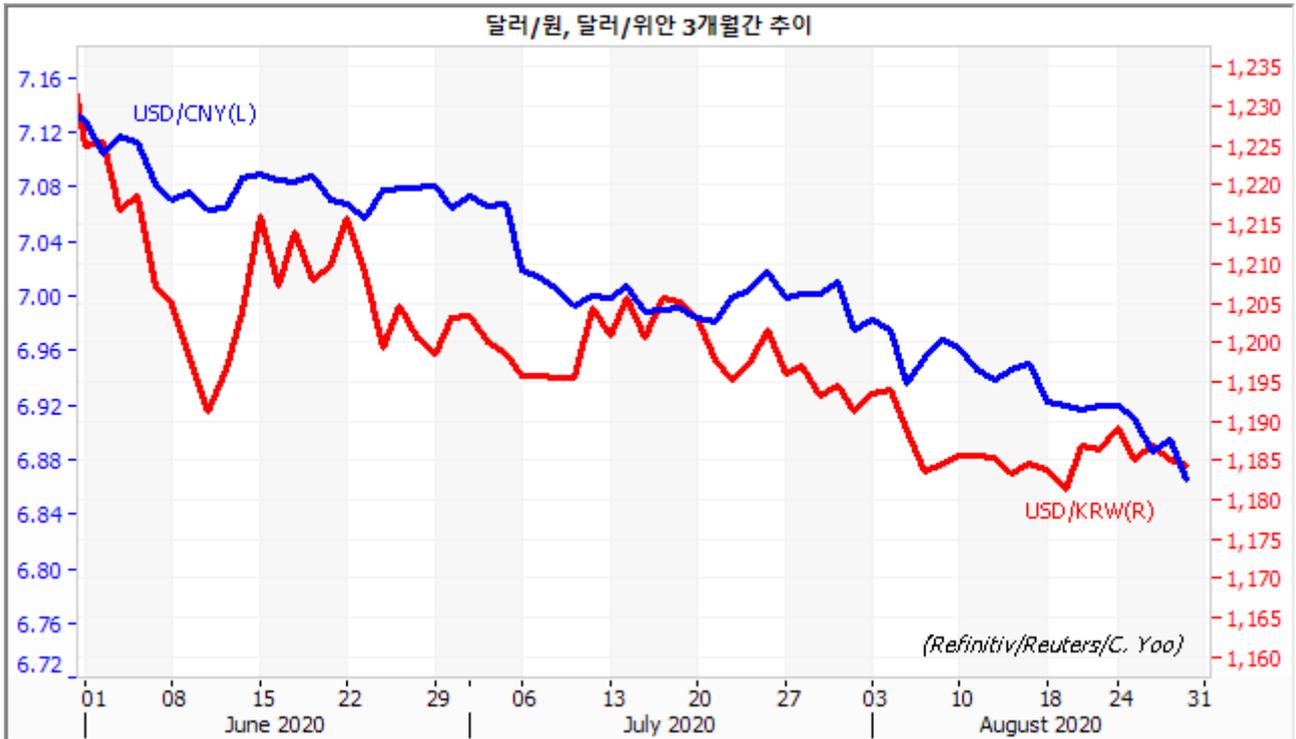
D 은행 외환 딜러는 "3 단계로 격상하면 환율이 반응을 해야 할 듯한데 코로나 19 이슈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당국 입장에서는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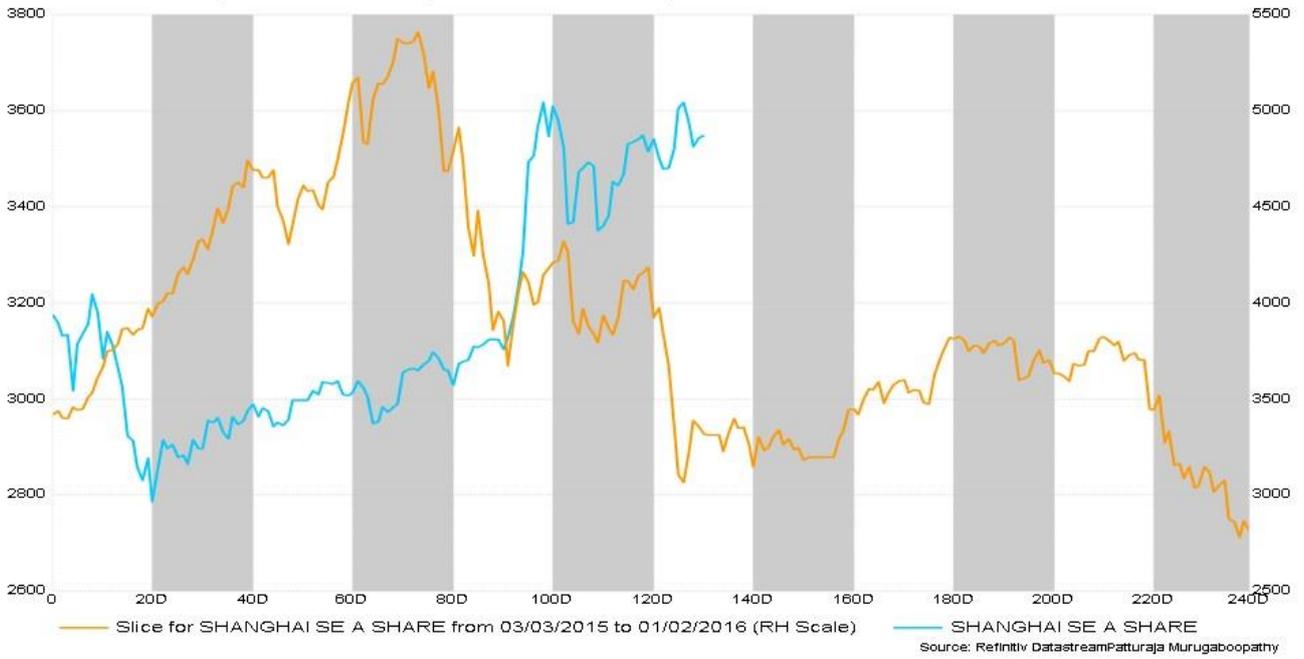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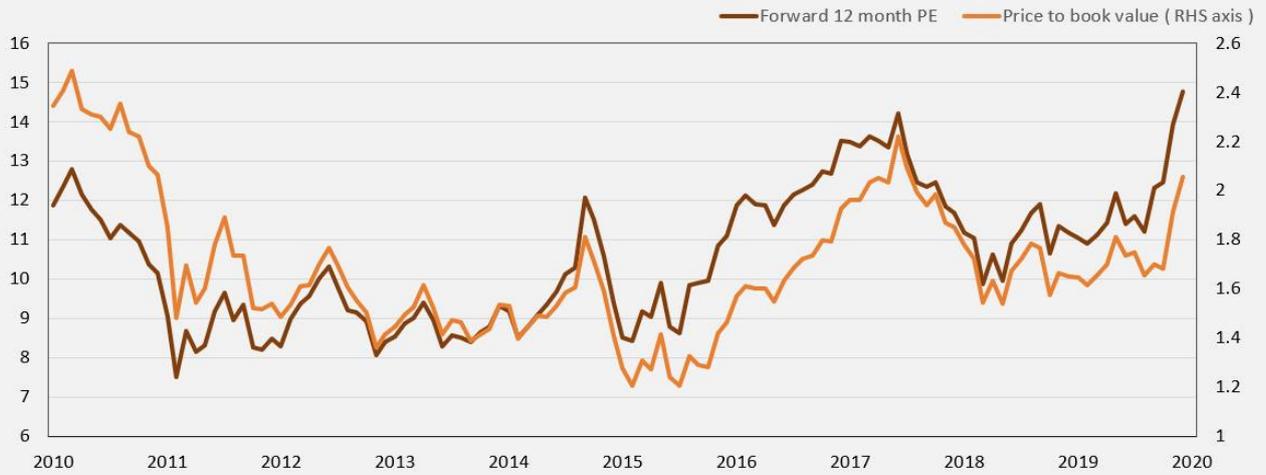


SSE Composite index (2015 vs 2020)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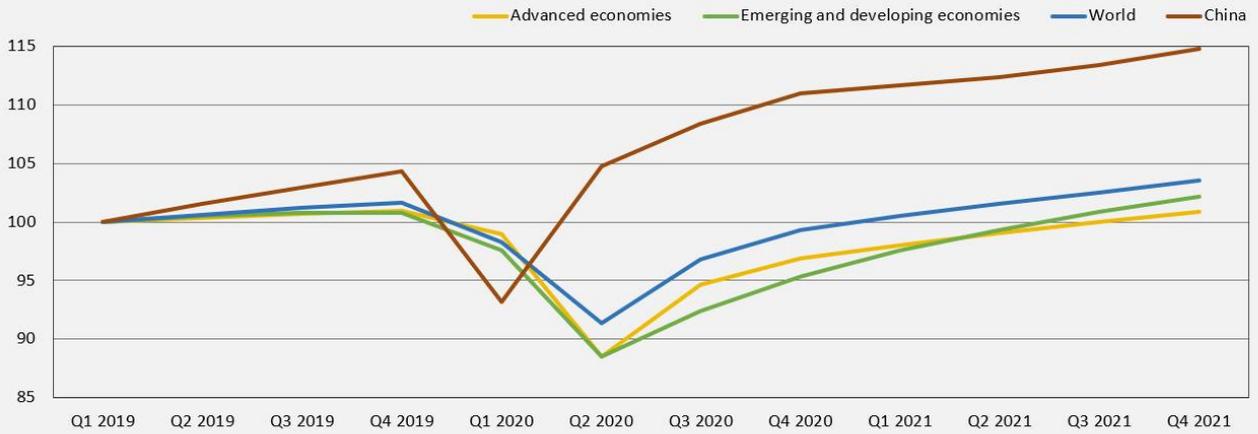
China shares' valuations in last 10 years



Note: Valuation ratios for MSCI China index
Gaurav Dogra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hina's quarterly GDP compared with global econom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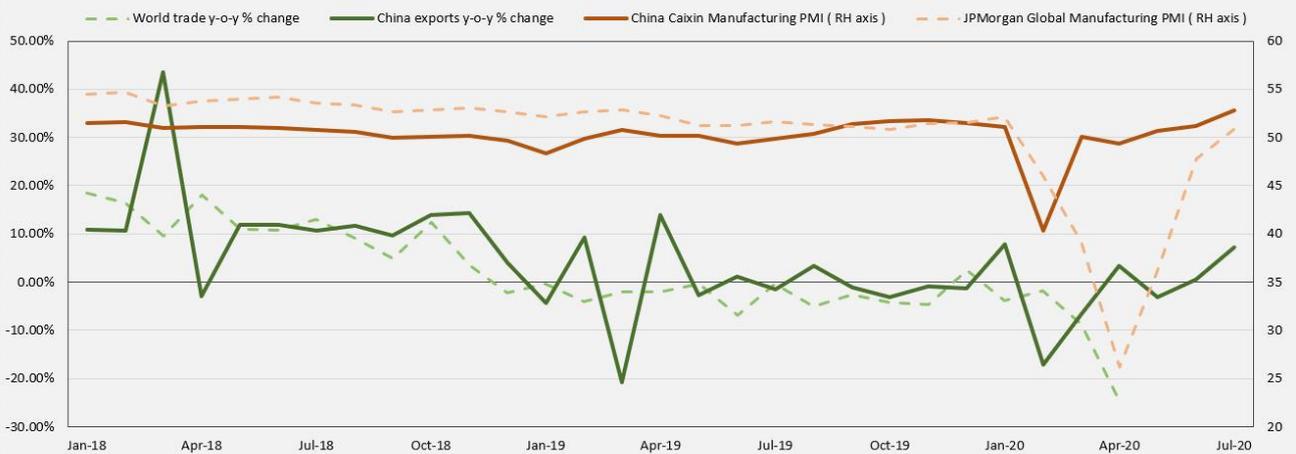
Note: Q1 2019 GDP rebased to 100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Oxford Economics data, Refinitiv Datastream

Gaurav Dogra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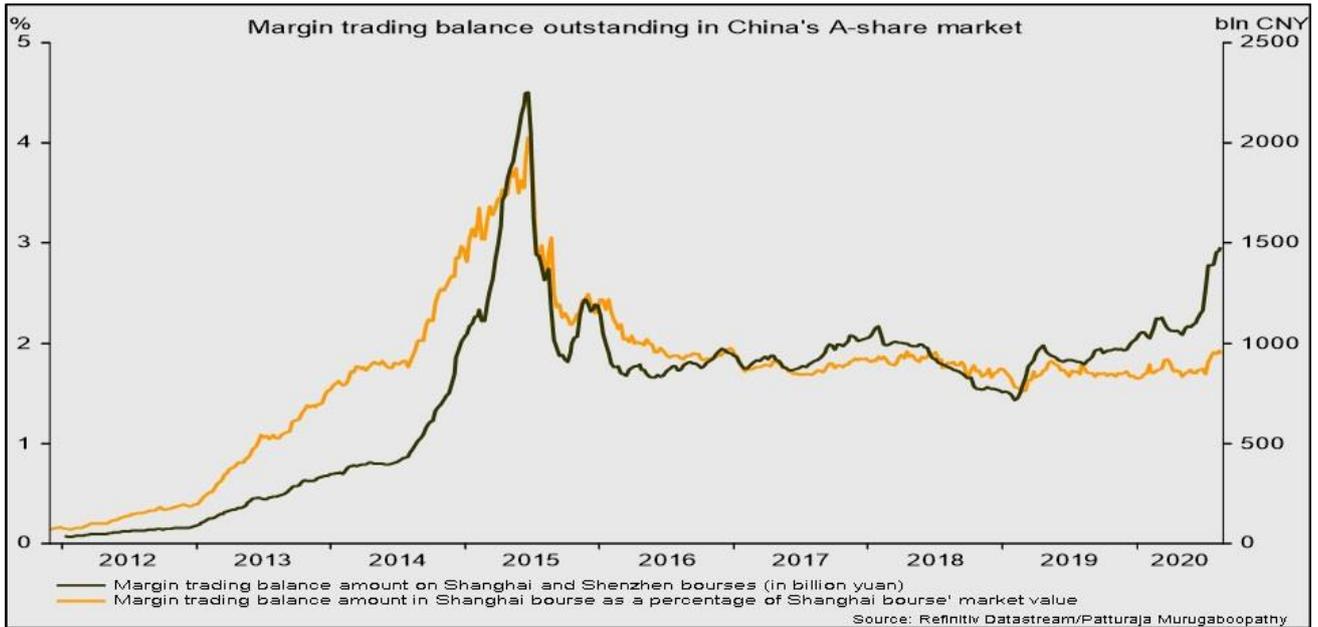
China's manufacturing activity and exports growth compared with rest of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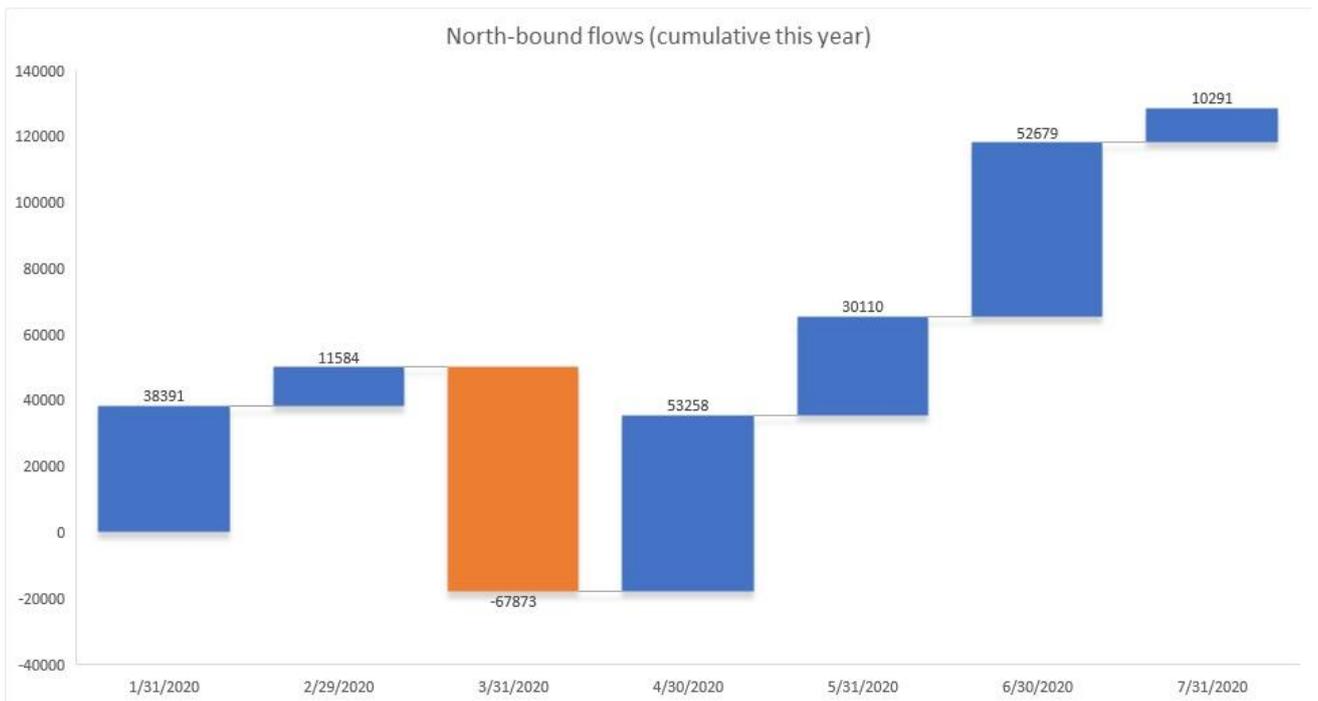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IMF, national sources, JPMorgan

Gaurav Dogra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